

5/ 현대일본 문화 속의 ‘학력 사회’ 표상과 분단*

남상욱



학력 사회 일본의 상징인 도쿄대학 아사다강당

남상욱(南相旭) 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및 동교 일본문화연구소 소장. 미시마 유키오의 미국 표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래, 전후 일본문학 속의 미국 표상 및 보수주의의 문제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 『三島由紀夫における「アメリカ」』(彩流社, 2014),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자음과모음, 공저, 2014), 『탈 전후 일본의 사상과 감정』(박문사, 공저,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다와다 요코의 『현등사』(자음과모음, 2018) 등이 있다.

*이 논문은 2020년도 인천대학교 자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https://doi.org/10.29154/ILBI.2022.26.130>

1. 들어가며: ‘대중교육 사회’ 흔들림 속의 문학 속 ‘학력’ 표상

이 글은 현대 일본의 학력 사회 표상의 문제를 동시대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문학 텍스트를 통해 학력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을까.

일본의 근대문학은 학력 사회 표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 최초의 ‘언문일치’ 소설로서 알려진 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뜨구름』(浮雲, 1891)의 도입부는 도쿄의 관청가에서 퇴근하는 관료들에 대한 묘사로부터 시작되는데, 관료들의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직급의 차이는 이제 막 형태를 갖추게 된 ‘학력’과 무관하지 않다. 에도 막부에 종사하며 녹봉을 받다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족 집안 출신인 소설 속 주인공 분조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부에 전념해 마침내 공립학교의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됨으로써, 관료사회의 끝자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학력은 어디까지나 관료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조건일 뿐, 아직 공무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던 메이지 초기에 출세는 전적으로 직장 상사의 권한에 달려 있어서, 이야기 속에서 상사에게 아부하지 못하는 분조는 해고당하고 만다. 이는 학력과 사회적 능력이 아직 일치하지 않은 당시의 풍경에 대한 재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조가 배속된 부서 과장이 “일찍이 서양 물을 마신 적이 있는 만큼 ‘대감님 풍’(殿様風)이란 말을 몹시 싫어했다”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¹ 이 작품이 표상하는 이 시기의 일본 관료사회는 봉건적 세습주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분위기였음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즉 서구적 국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만들어진 근대 관료주의는, 봉건적 세습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능력’을 요청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한자와 외국어, 수학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 학문을 가르치는 근대적 고등 교육 기관을 대중들이 욕망하게 되는 이유인 셈이다. 『뜨구름』은

1 二葉亭四迷, 『浮雲』, 岩波文庫, 1941, 68쪽.

근대적 학문을 성실히 배워 어렵게 관료사회에서 진입해도 출세하지 못한 주인공 분조를 내세움으로써 학력을 통한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소설로부터 일본 근대문학이 시작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후타바테이 이후의 일본 문학자들이 입신출세의 수단이 되는 제국대학에 진학했음에도 관료보다는 문학자를 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후타바테이의 『뜯구름』은 근대 이후 일본 사회의 비판 역시, 그 비판적 재현 도구로서 ‘언문일치’와 이를 가능케 한 소양으로서 외국어나 고전 리터러시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근대문학과 학력의 밀착 관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전전의 대문호였던 모리 오가이(森鷗外)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를 비롯해 전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까지, 근대문학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도쿄 제국대학 출신으로, 학력 귀족으로도 일컬어진 이들은 다케우치 요가 이미 지적인 바 있듯이 근대 교양주의 형성은 물론이거니와,² 전후의 교양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학생운동이 격화되어 도쿄대 입시가 중지되었던 1969년 2월을 배경으로 도쿄대 수험을 준비했던 명문 히비야고등학교 3학년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일본의 뿌리 깊은 학력사회를 비판한 내용으로 화제를 모으고,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빨간 두건 아가씨 조심해!』(赤頭巾ちゃん気をつけて)의 작가 쇼지 가오루(庄司薫)까지 이어진다.

주인공 쇼지 가오루는 학교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히비야고등학교 출신이기도 한 작가의 분신이기도 한데, 그에 따르면 교육개혁 이후의 히비야고등학교는 “시험은 일 년에 두 번뿐이며, 성적 발표도 없어 누가 잘하고 못하는가 하는 우등생에게 있어 중요한 것조차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큰 오케스트라가 늘 연주회를 하거나 이상한 잡지가 여기저

2 竹内洋, 『学歴貴族の栄光と挫折』, 講談社学術文庫, 2011, 254~302쪽.

기서 발행되는 등 클럽 활동”과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히비야고등학교는 말하자면 “마치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후민주주의 교육 이념 같은 것을 연출”하는 데 여념이 없었는데, 작가는 이를 “전국의 고등학생이 모두 머리를 싸잡고 고민하는 수험 경쟁을,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전혀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설령 그것이 표면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격렬한 현대 생존 경쟁에 대한 하나의 모욕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이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엘리트 의식이 아닌가?” 하고 비판한다.³

전후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도쿄대 전공투와 이념을 공유하며, 생존 경쟁 그 자체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행해지는 교육개혁의 기만을 비판하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예컨대 지성이란 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듯이 자유로운 것이며, 원래 대학이라든지 학부라든지 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라면, 내가 우연히(분명 내 행운 때문이었지만) 결정했던 도쿄대가 입시 중지가 되었다고 한들, 크게 당황해서 벌벌 떠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며 대학입시 자체를 포기한다. 학력이 지성과 동일시되는 통념에 대한 의의제기는 일본 사회 속에 학력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결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한 작가가 도쿄대 출신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일본 문학인들은 자신들의 리터러시로 ‘학력 사회’ 문제를 재현해 왔는데, 이 소설 이후 한동안 일본 문학에서 입시 경쟁의 문제는 좀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 이는 1970년대 대다수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고, 일본 교직원 조합에 제시한 ‘유토리교육’(ゆとり教育)이라는 학습지도요령이 1980년대 시행된 점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일억총중류’(一億総中流)를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인 1980년대 이후의 일본에서 “어떤 계급에 대해서도 교육이 열려 있어,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이른바 “대중교육 사회”가 성립된 것과 더

3 庄司薫, 『赤頭巾ちゃん気をつけて』, 中公文庫, 1973, 93~96쪽.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⁴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일본의 문학장 역시 이른바 명문대 남성 작가 일변도에서 벗어나, 여성과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작가들의 목소리로 채워지게 된다.

한편 1990년대 일본 문학 및 문화 담론장에서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 입시나 학력 문제보다는, 이지메 및 소년범죄와 등교 거부 등의 ‘교육 붕괴’가 더 중요한 화두였다.⁵ 교육 목표를 학력보다는 인간성에서 찾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교육 현장의 교권 실추와 학생들의 폭력이라는 사실에 ‘휴머니티’를 강조해 온 작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유토리교육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가 본격적인 문제로 다뤄져 사회적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만화잡지 『모닝 KC』(モーニングKC)에 연재되어 2005년 TV 드라마로 만들어진 <드래곤사쿠라>(ドラゴン桜)다. 이 드라마는 학력 편차가 36까지 떨어져 학원경영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립학교가 폭주족 출신의 변호사 사쿠라기 겐지(桜木建二)의 지도하에 도쿄대 합격을 위한 특별반을 운영해 학생들을 ‘학력 사회의 최정상’에 위치한 도쿄대에 합격시킴으로써 위기를 타파하는 이야기인데, 『빨간 두건 아가씨 조심해!』 이후 수면 밑에 감춰졌던 생존 경쟁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측면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영화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ビリギャル, 2015) 같은 아류작을 낳기에 이르게 된다.

대학 진학이 교육의 명확한 지표가 됨으로써 학습자의 삶이 바뀌게 되는 성공 신화는 현실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모든 이가 실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허구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러한 허구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된 것일까?

4 荻谷剛彦, 『大衆教育社会のゆくえ』, 中央公論新社, 1995, 12~13쪽.

5 이지메와 관련해서는 야마다 에이미(山田詠美)의 『풍장의 교실』(風葬の教室, 1988), 소년 범죄와 관련해서는 유미리(柳美里)의 『골드러시』(ゴールドラッシュ, 1998),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해변의 카프카』(海辺のカフカ, 2002)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과 자기책임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많은 사람이 동조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2007년 1월 잡지 『논좌』(論座)에 발표된 아카기 도모히로(赤木智弘)의 「마루야마 마사오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싶다: 31세, 프리터. 희망은 전쟁.」(「丸山眞男」をひっぱたきたい: 31歳, フリーター. 希望は, 戦争.)이라는 제목의 글은, 동시대 일본에서 가능한 ‘분배’란 이익의 분배가 아닌 전쟁과 불안 같은 불이익의 공평한 분배밖에 남아 있지 않지 않은가라고 반문함으로써 일본 사회 속의 기회의 불평등을 가시화할 뿐만 아니라, 일억총중류나 전후민주주의 이념의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유명하다.⁶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격차와 관련된 담론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교육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의 일본 학력 사회는 어떻게 표상되고, 그 표상의 배후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2010년대의 일본 문학작품 속의 학력 사회 표상의 문제를, 만화 〈드래곤사쿠라〉와 소설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彼女は頭が悪いから, 2018)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텍스트 속의 학력 표상의 문제점을 동시대 일본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 일본의 학력 사회와 문학과와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20세기 구제고등학교와 제국대학의 출신 작가에 초점을 맞춰 이들을 통해 엘리트주의와 일본 사회의 불평등 같은 문제를 드러냈다면, 이 글에서는 작가의 출신보다는 2000년대 이후 텍스트가 재현하는 학력 사회가 어떤 컨텍스트 속에서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6 赤木智弘, 『若者を見殺しにする国: 私を戦争に向かわせするものは何か』, 双風舎, 2007, 221쪽.

2. 학력 저하와 도쿄대 입시:

〈드래곤사쿠라〉가 그리는 2000년대 일본의 ‘교육’ 표상

원작 만화 〈드래곤사쿠라〉는 2000년대 중반 인구감소에 의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직면한 일본의 중등교육의 문제를 재정이 열악해진 사립학교 경영자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1948년 류카(龍花)여학원으로 출발한 류잔(龍山)학원은 여학생 입학자의 감소로 인해 1990년대 후반 명칭을 류잔고교로 바꾸고 남녀공학교로 문호를 넓히는 한편,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방침을 스포츠 강화로 정해 학교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융자를 받아 체육관을 신설하고 운동장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인 설비투자에 나선다. 하지만 입학자 수는 예상보다 훨씬 밑돌아 수입이 격감해, 24억 엔의 차입금 이자 및 재산세 등을 내지 못하고, 불명확한 지출을 이유로 사학조성금도 받지 못해, 학교법인의 청산 직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입학생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도산 및 해산의 위기 상황에서 학교법인의 요청으로 법인과 채무자의 중재역을 맡게 된 사쿠라기 겐지 변호사는, 채권자들에게 학교법인의 청산보다는 민간 재생법에 근거해 경영 개선을 통한 사업 지속의 방법을 권고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스포츠강화 경영 방침을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진학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스스로 특별진학반 담임을 자청하게 된다.

이러한 〈드래곤사쿠라〉의 이야기 설정은, 인구감소의 여파가 지방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먼저 오게 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따른 교육관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사회 계급적 격차와 관련된 교육 담론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일본에서 지방소멸론은 2010년대 중반 이후임을 고려해 볼 때 이 작품은 일본의 교육 담론 활성화의 기폭제가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토리교육 이후 일본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 붕괴’는 예견

대 <슬램덩크>(SLAMDUNK)와 같은 만화로 대표되는 서브컬처 영역에서는 이미 일상적 풍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는 일본이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 글로벌리즘에 따른 전방위적인 경쟁 체제의 도래와 사회적 격차의 심화,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자체의 존립 위기까지를 시야에 넣은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드래곤사쿠라>는 상술했던 이유로 인해 학교 존립을 위해 교육 현장에 비교육자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학교와 교육에 대한 내부자의 관점이 상대화되게 된다.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 학원의 ‘재생’을 위해 사쿠라기 변호사는 매년 100명의 도쿄대 입학자를 배출하는 진학교(進学校)로의 전환을 제시하는데, 이에 맞서 다카하라(高原) 교사는 학교를 “학생들에게 매력 있는 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간성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환경으로 재정비”하기를 주장한다. 이러한 반발에 맞서 사쿠라기는 “당신이 말하는 매력은 뭔가, 개성이란, 인간성이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반문하며, 자신에게는 “도쿄대 합격 백 명”이라는 경쟁력이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쟁 원리를 교육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교육계 내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교사의 주장과 “교육도 비즈니스다, 시장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는 교육계 외부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은,⁷ 단순히 교실 붕괴가 아니라, 글로벌 규모의 신자유주의 물결 앞에 놓인 일본 교육 미래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텍스트 속의 학원의 위기 설정은 매우 과장적이지만, 바로 그렇게 극단적인 허구적 상황을 작위적으로 끌어들이함으로써 교육계 내부의 언어가 전경화된다. 즉, 경쟁 원리를 교육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는 교사의 발화는,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그 여파가 교육 현장을 이미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 낸 컨텍스트에 놓이게 됨으로써,

7 三田紀房, 『ドラゴン桜 フルカラー 版』1巻, kindle版, コルク, 2021, 89~90쪽.

그 고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있어 경쟁을 당연시하는 사쿠라기의 주장도 허구적임을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쿠라기 말처럼 학생들이 정작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이 시기의 일본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용 불완전으로 인해 취직 활동을 위해 수년 동안 졸업을 유예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까지 속출하는 시기였다.⁸ 학령인구가 줄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고등학생들은 원하기만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대학전입시대”(大学全入時代)가 도래한다고 일컬어졌지만, 실제로는 깃카와 도루(吉川徹)가 지적했듯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희망하는 고등학생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⁹ 대학 진학이 안정적인 관리직을 보장해주는 신화가 끝난 상황에서, 대학 진학에 대한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길 주장하는 <드래곤사쿠라>의 ‘리얼리티’는, 실은 학교 밖의 경쟁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의 문제를 고의로 은폐함으로써 획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허구적 논리의 만화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드라마로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대학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려 비정규직 사원이 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니트족’(ニート族)이 나오게 되는 고용 불안의 현실이, 오히려 명문대 진학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역설적인 사실과 관련된다. 아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는 거품 경제 붕괴와 저성장 사회 진입 이후 대졸이라면 당연히 관리직에 취업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좋은 취직을 위해서는 군열이 적은 파이프라인, 즉 편차치가 높고, 안정적인 의학부 등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지고, 일부 대학, 학부에 대한 수험 경쟁이 격화된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¹⁰ <드래곤사쿠라>에

8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 ちくま文庫, 2007, 192~197쪽.

9 吉川徹, 『学歴分断社会』, ちくま新書, 2009, 17~26쪽.

10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 208쪽.

서 사쿠라기 변호사가 모든 학생의 대학 진학을 제고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도쿄대 진학만을 주장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명문대 입학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쿠라기가 도쿄대 입학의 의미를 높은 보수를 받는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는 절대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별진학반을 소개하기 위해 학생들 앞에 선 사쿠라기는, “사회에는 룰이 있고, 그 룰 위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사회의 룰은 모두 머리 좋은 녀석들이 자신들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쓰지 않으면 평생 그들에게 “속아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라고 주장할 뿐이다. 요컨대 사쿠라기에게 공부는 엘리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필요한 수단 정도로 그칠 뿐이다. 만약 그것만이 공부의 이유라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음은, 스스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사법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길을 걸은 사쿠라기 그 자신의 이력이 충분히 증명하는데도 말이다.

사실 <드래곤사쿠라>에서 사쿠라기는 학생들에게 꼭 도쿄대에 가야 할 구체적인 동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 자신에게 있어 학생들의 도쿄대 진학은 경영 위기에 빠진 학교를 재생시키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어서, 도쿄대에 반드시 가야 할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가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 특별진학반에 들어가 도쿄대 진학을 위해 공부하게 된 학생은 술집을 경영하는 싱글 맘 밑에서 자란 미즈노 나옴이(水野直美)와, 부유하지만 우수한 형들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는 야지마 유스케(矢島勇介) 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도쿄대 진학을 위한 온갖 방법을 제공해 주더라도, 그 동기는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교육계의 오래된 잠언을 떠올리게 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드래곤사쿠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방법이다. 실은 <드래곤사쿠라> 내용 대부분은 도쿄대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부법에 대한 소개의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1년 공부만으로도 도쿄대 진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것은 실현 가능한 일인가?

이에 대해 사쿠라기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원 약 3,200명 규모의 도쿄대 평균 합격점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구름 위의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¹¹ 거기에 수험에는 지능보다는 끈기와 테크닉이 필요하며, 주도면밀한 전략 아래에 제대로 훈련을 거듭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한다. 요컨대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전반적인 학력 저하로 인해, 개인의 노력을 지원해 줄 전략과 입시 테크닉만 있다면 누구라도 도쿄대 입학할 수 있을 만큼, 입시라는 게임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음을 환기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종종 언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2006년 OECD 학생 학습 도달도 조사(PISA)에서 일본의 점수 저하가 문제시된 이후였다. 이를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2007년 ‘교육재생회의’(教育再生会議)를 출범시킴으로써 탈 유토리교육을 위한 시동을 걸고 나선다. 그와는 정치적 이념이 다르지만 당시 일본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한 우치다 다쓰루(内田樹)는 “같은 학령집단의 학력이 저하하면 저하할수록 경쟁의 부하(負荷)는 경감”하므로, “학령기 아이들을 가진 일본인 어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아이 이외의 일본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이것이 바로 학력 저하를 심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²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일본의 교육계에서 일어난 일은 무한 경쟁을 통한 평균점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경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전반적인 학력 저하였다고 하는 우치다의 지적은, 신자유주의가 모든 부정적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사회와 국가의 관심 속에서, 일견 학력 저하가 멈춰지고 2011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탈 유토리교육이 시행된 것처럼 보이

11 三田紀房, 『ドラゴン桜 フルカラー 版』 1巻, 55쪽.

12 内田樹, 『下流志向』, 講談社, 2013, 전자책, No. 150/2977.

지만,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도쿄대 입학 평균점은 의학부를 제외하고 조금씩 하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 〈드래곤사쿠라〉는 이러한 사회적 문맥을 선취함으로써, 이야기 속의 도쿄대 진학 특별반의 정당성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학력이 떨어졌다고 한들, 공부한 지 1년 만에 도쿄대에 합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도쿄대 입학자의 상당수는 사회 경제적으로 상위 계급의 자녀들로, 어렸을 때부터 입시학원의 전략 속에서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학교에 진학하고 뛰어난 강사들이 포진된 학원에 다닌다. 그런 의미에서 〈드래곤사쿠라〉의 사쿠라기의 실험은 매우 확률이 낮은 도박임이 명백하다.

그렇지만 〈드래곤사쿠라〉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중등교육의 목표를 인성교육에서 진학으로 재설정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와 교육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읽고 이에 준하는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리더 밑에서, 과목별로 우수한 선생의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도쿄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단순하긴 해도 그 명확한 의미 내용으로 인해 학습자와 학부모를 충분히 매료시킬 만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이전의 중등교육 목적이 얼마나 복잡하며 불투명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교실 붕괴와 학력 저하라는 교육계의 위기가 명문대 진학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것만으로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력 사회의 최정상에 위치하는 대학에 대한 욕망과 경쟁에 대한 긍정은, 일단은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표류하던 중등교육에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는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3 Utaisaku-web, 「東大入試足切り点・合格最低点推移」, <https://today.info/juken/data/> (최종검색일: 2021. 11. 30.).

3.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 속의 학력 사회: ‘편차’와 능력주의의 세계

그렇다면 대학을 들어간 이후의 ‘학력’은 문학-문화 담론 속에서 어떻게 표상될까? 본 장에서는 2018년 출간되어 시바타 렌사부로상을 수상한 히메노 가오루코(姫野カオルコ)의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¹⁴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소설은 2016년 5월 발생한 일명 ‘도쿄대 외설 사건’(도쿄대학 탄생일 연구회 강제 외설 사건)을 제재(題材)로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다른 학교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를 하기 위한 명목으로 연합 동아리 ‘탄생일 연구회’를 만든 도쿄대 남학생들이 2016년 5월 10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한 여성을 스가모(巣鴨)의 한 맨션으로 데리고 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를 거듭하자,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가 간신히 탈출해 공중전화로 경찰에 신고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파렴치한 가해 행위의 구체성이 밝혀지고, 이것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 된다.

그러한 보도 중에는, 현장에 있었던 다른 여성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자고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으며, 가해자 중에 이미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들도 적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보도와 반응을 지켜보던 히메노는 “남자에게 조롱당하며 알몸이 된 현장을 동성(同性)에게 목격당한 상황에서, 그 동성으로부터 ‘돌아가지 않을래?’라는 말을 듣고, ‘그래 돌아갈래, 기다려!’ 하고 금방 몸을 움직이는 여성이 당연한 듯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A씨(피해자)에게도 불행하고, 도쿄대생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사건에는 훨씬 사소하면서도 복잡한, 보편적인

14 히메노 가오루코, 정수란 옮김,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 연우출판, 2020. 초출은 姫野カオルコ, 『彼女は頭が悪いから』, 文藝春秋, 2018.

경위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사건을 사실에 근거해서 쓴다면 프라 이머시를 폭로하는 왜소한 것이 되고 말 테니, 픽션의 형태로 써 보자고” 결 심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¹⁵

그녀 말대로 소설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및 학교, 동아리 이름 등을 바꾸고, 범위를 그들의 가족관계까지 넓히고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도쿄대라는 학교 이름이다. 그 때문인지, “도쿄대생 전원이 [이 소설 을] 도쿄대 보고서로서 읽고, 잘못된 보고서라며 화를 내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히메노는, “화가 난다면 나는 도쿄대에 입학한 우수한 ‘능력’ 을 이런 짓에 사용한 쓰바사 일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소설은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가 2019년 도쿄대 학부 입학식 때 행한 축사에서 언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대 입시에 있어 여성 수험 생의 편차치가 남성 수험생보다 높음에도 남성의 합격률이 여성보다 1.2배 가 높다는 통계를 근거로 여학생에 대한 차별을 문제시한 것으로 유명한 이 축사에서, 우에노는 이 소설의 제목인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라는 말이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인 도쿄대 남학생이 입에 담은 것임을 상기시킴 과 동시에, 이 작품을 “도쿄대 남자 학생이 사회로부터 어떤 눈으로 보이는 지”를 알려 주는 좋은 사례로서 제시하고 있다.¹⁶ 남녀 교제에 있어 스스로 도쿄대 출신임을 숨기려는 여학생에 비해, 도쿄대 남학생은 그것을 당당하 게 말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소설만큼 잘 보여 주는 작품 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녀 차별이라는 매우 공고한 사회적 편견에 오직 자기 능력만으로 맞 선 우에노에게 있어, 남녀의 성적 편차 데이터는 ‘여성은 머리가 나쁘다’라 고 하는 인식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음을 환기하 게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우에

15 『彼女は頭が悪いから』作者・姫野カオルコさんインタビュー: 小説に込めた思いとは, 『東大新聞オンライン』 2019. 2. 7. <https://www.todaishimbun.org/himeno20190207/>(최종검색일: 2021. 10. 20.)

16 上野千鶴子, 『平成31年度東京大学学部入学式祝辞』, 2019. 4. 16. https://www.u-tokyo.ac.jp/ja/about/president/b_message31_03.html(최종검색일: 2021. 10. 25.)

노의 주장은 학력 편차를 근거로 한 능력주의를 긍정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소설은 단순히 도쿄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보다는, 도쿄대생과 비도쿄대생의 차이를 입시 편차치를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요컨대 이 소설은 대입의 수단인 편차가 입시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학생 간의 차이를 가르며 편견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실제로 이 소설은 여주인공 간다쓰 미사키(神立美咲)와 남주인공 다케우치 쓰바사(竹内つばさ)의 대학 시절이 아니라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차이가 이미 그 시절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편차치’라는 유령이 떠도는 대학

요코하마(横浜) 아오바구(青葉区)에 위치하는 간다쓰 집안은 원래 농가였는데, 도쿄선 부설로 인해 지역이 개발된 이후부터는 남성들은 급식 납품 회사에, 여성들은 세탁소에서 일하게 된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지내는 미사키는, 소학교 시절의 친구 아스카가 “매일 전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며 통학”해야 하는 니혼여자대학 부속 중학교에 진학한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차피”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자신의 상승 욕망을 포기할 뿐이다.

이후 미사키는 가나가와현립 후지오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이 학교는 “현에서 톱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오바구에서는 명문고”로 알려졌지만, 작자에 따르면 “중학교 때 공부를 그럭저럭했던 학생이 한 학년에 열두 반이나 모여 있는 매머드 학교”로 “허술한 교칙, 명량한 교풍” 탓에 “대학 진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와 동시에 허술한 면학 태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까지 학원(塾)도 한 번 다니지 않고, 틈틈이 집안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봤던 장녀 미

사키는 결국 3지망으로 ‘미즈타니여대’¹⁷ 종합생활학부 글로벌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 작자는 입시 학원이 추정하는 그 대학 입학생들의 고교 편차치 순위가 ‘48위’임을 명시한다.

소설 속에서 실재하는 다른 대학들의 편차치는 명시되지 않지만, 입시 학원 자료들을 참조했을 때 그녀의 1지망인 메이지쿠인대학 문학부 예술학과는 55, 2지망인 센슈대학 문학부 인문 저널리즘학과는 50의 편차치임을 감안한다면, 미사키의 입시 결과는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같은 학교 출신 중 여대 진학자의 상당수가 가는 학교들로 제시되고 있는 “세이신, 잇센, 교리쓰, 오사카쇼인, 야스다” 등이 편차치 42~5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그녀의 입시 결과는 평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을 편차치라는 관점에서 본 적이 없었던” 그녀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녀가 “메이지 시대의 재봉학교를 연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합리적인 가정학’이라는 슬로건으로 화제가 된 역사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뿐이다.

작자가 미사키의 학교로서 이러한 후지오고등학교를 설정한 것은, 이 학교가 ‘근년 공립 고등학교 수험 대책 실패 사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야기 속의 가나자와 가가미가오카 고등학교 교사의 전언에 따르면 원래 지방의 경우 공립학교가 사립에 비해 편차치가 높았는데, 1990년대 들어 사립학교들이 ‘특별진학 코스’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편차치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한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지방 고등학교 편차치 10위권에는 명문고 중 하나만 남고, 대부분을 사립고가 장악하게 된다.¹⁸ 요컨대 <드래곤사쿠라>의 류잔고등학교의 특별진학반 같은 실험은 1990년대 지방에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립학교의 미흡한 대응이 미사키의 대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도쿄 히비야선 근방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다케우치의 집은 농림

17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학교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학교명은 가명으로 썼다고 추정된다. ‘후지오 고등학교’도 가명이다.

18 히메노 가오루코,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185~186쪽.

수산성에 근무하는 아버지에게 제공되는 국가 공무원 관사이다. 홋카이도 이와미지와 출신으로 홋카이도대학을 나와 농림수산성에 들어가면서 도쿄로 이사한 쓰바사의 아버지는, “도쿄대 출신이 2할 가까이 되는 성청(省廳)에서 매일 조지와 같은 도쿄대 2세 또는 도쿄대 3세와 부대끼며 자신이 프로방스의 수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두 아들을 어떻게든 도쿄대에 보내고 싶어 한다. 도쿄 가쿠게이대를 나와 초등학교에 1년 정도 근무했던 어머니는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어 유기농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등 자녀 교육에 헌신하여, 첫아들을 중고일관 명문 사립학교¹⁹에 진학시킨 후 도쿄 대학 법대에 입학시킨다. 반면 “돈이 썩어나는 부모를 둔 놈들을 쫓아가면 서까지 학교에 다니고 싶지는 않다”라며 공립중학교를 선택한 둘째 아들 쓰바사는, 명문 국립대 부속 고등학교에 진학, 훗날 도쿄대 공대에 입학하게 된다.

이러한 쓰바사의 가정환경은, 자녀의 학력이 부모의 재력과 문화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학력 세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물론 더 낮은 편차치의 고등학교에서도 명문대 진학이 전혀 없지는 않고, 반대로 편차치가 높은 명문고에서도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²⁰ 이러한 데이터는 입시에 있어 학교 간의 편차치 격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의 자발적인 노력임을 사회가 꾸준히 환기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작자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차이를 더 많이 강조한다. 예컨대 “도쿄대라는 학교에는 집에 돈이 썩어나는 놈들이 넘쳐난다. 대학별로 부모의 연간 수입을 비교한 통계에서는 도쿄대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라든지²¹ “사립학교에 들어가고 학원에 다니려면 부모에게 돈이 있어야 하므로, 지적 능력은 물론 부잣집 자제들이 모인다는 점에서도 도쿄대는 단연 일본 최고

19 소설 속에서는 아사부(麻武)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아자부(麻布)고등학교임을 알 수 있다.

20 橘木俊詔, 『日本の教育格差』, 岩波書店, 2010, 133쪽.

21 히메노 가오루코,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139쪽.

라고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²² 도쿄대와 부모의 재력의 상관관계를 반복한다. 또한, 마치 이를 입증하려는 듯이 ‘별자리 연구회’의 주요 회원인 미우라 조지와 와쿠타 사토루, 구니에다 고지가 각각 경제적으로 최상위층에 속하는 가정에서 자랐음을 작자는 자세히 보여 준다.

이는 편차치에 의한 학력 구분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학생 선발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에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소멸하거나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소설 속에서 편차치는 사건을 일으키는 가해자인 도쿄대생들만이 아니라, 피해자인 미사키와 관련된 인물들도 자신과 타자를 구별 짓는 수단으로 쓰인다.

예컨대 미사키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노우에 나쓰미는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도쿄이과대 제2부(야간 학부)를 다니는데, 미즈타니여대와 요코하마교대 남학생들과의 미팅에 초대되자 “마치 도쿄이과대 주간부에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여 그녀를 초대한 미사키를 통해 사전에 그녀의 정보를 듣게 된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 사건을 통해 작자는 고등학교 편차치를 근거로 한 대학의 구별짓기가 현대 일본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소설 속에서 요코하마교대 학생들은 이 때문에 그녀를 조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중의 한 명이 상처 입었을 그녀를 위로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되는 식으로 전개된다. 이는 대학생들이 입학 때의 편차치를 단순히 ‘끼리끼리 문화’나 신분 상승을 위한 욕망의 대상, 혹은 자기 비하의 원인으로 삼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전유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문제의 별자리 연구회의 멤버들은 편차치를 극복하기는커녕,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사실로 삼아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의 편차치가 마치 유령처럼 대학을 떠도는 이유는 무

22 히메노 가오루코,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208쪽.

엇일까. 그것은 대학생으로서 미사키와 쓰바사의 차이를, 대학생들 간의 실질적인 능력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일원화된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즉, 고등학교 편차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학 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데이터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의 수준은 연구력인가 취업률인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연구력과 취업률 또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 입학 시의 성적과 대학 졸업 시의 성적을 절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학력'을 입학 성적으로밖에는 추측할 수 없지 않을까.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 세계대학평가 같은 것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세한 차이로 서열화된 일본의 대학의 '학력'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일본 문학예술 작품의 상당수가, 교육 격차의 문제를 대학 입학까지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도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드래곤사쿠라>에서 도쿄대 입학을 목표로 특별진학 클래스를 만들듯이, 대학이 일률적인 기준 아래에 평가받는다든 것을 전제로 특별한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위한 집중 클래스를 만드는 일은 현실 공간에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2) 능력주의라는 문제

한편 이 소설 속의 대학 내 편차치의 전면화는, 오직 능력에 의한 대학 진학만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식으로 강조해 온 2000년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확대와도 관련된다.

실제로 형에 비하면 비교적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도쿄대생이 된 쓰바사는, 게이오기주쿠 뉴욕 학원에 진학하기로 되어 있는 동급생처럼 “부모의 재력이 제힘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재력에 의한 학력 세습을 경멸하고 개인의 능력을 절대시한다. 이는 ‘별자리 연구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문화자본이 빈약한 일명 ‘팽이버섯’으로 불리는 히로시마 출신의 이시 테루유키에게도 해당한다. 이시는 공립중학교 교장을 하는 교육자 집안의 차남으로, 성적으로는 신설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형을 뛰어넘어 “최상위 명문고 현립 가스가고등학교”에 진학해 도쿄대에 입학하지만, 집에서 보내주는 학비만으로는 남들 같은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없어 늘 아르바이트에 쫓기며, 연구회 회원들로부터는 늘 동정과 비웃음을 산다. 하지만 그는 “‘미스 게이오’를 어떻게 해 보려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귀찮은 이벤트 준비나 도와줘서 겨우 국물이나 얻어먹는 건 부모 돈으로 처음부터 게이오에 들어간 돌대가리야. 학교 이름만 대면 여자가 알아서 팬티를 내리는 건 도쿄대뿐이라고.”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게이오대학생을 혐오할 뿐만 아니라,²³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가 좋아서 도쿄대 문리과 대학에 입학한 중학교 동창 하루카를 끝내 이해할 수 없었던 쓰바사처럼,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가 좋아서 고치공과대에 합격한 자기 형을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학력 중심의 능력주의에 뺨속까지 물들어 있다.²⁴

『한국의 능력주의』의 저자 박권일이 적시했듯이, 능력주의(meritocracy)는 타고난 능력(merit)에 따른 지배(cracy)를 뜻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지만, 영(Michael Young)이 IQ와 노력에 따른 차별적 교육 시스템을 다룬 이후로, 학력주의의 대명사로 쓰이곤 한다.²⁵ 예컨대 일본의 교육 사회학자 깃카와 도루는 “학력에 의해 직업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하는 학력주의(meritocracy)”를 “자격에 의해 직업적 지위가 결정되”는 자격주의(credentialism)와 구별하고 있고,²⁶ 박권일도 “학력·학벌주의가 사실상 ‘meritocracy’의 다른 이름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²⁷ 사실 인간의 능력이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절대적 잣대를 들이대기 힘든데, 바로 이 때문에 이를 객관적 지표로 가시화하는 학력이나 편차치가 그것을 대신하게 된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할 만하다. 예컨대 근대 전환기인 1872년 후쿠자

23 히메노 가오루코,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244쪽.

24 히메노 가오루코,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215쪽.

25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못 참는 것에 대하여』, 이데아, 2021, 24쪽.

26 吉川徹, 『学歴分断社会』, 140쪽.

27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못 참는 것에 대하여』, 24쪽.

와 유키치(福沢諭吉)가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ゝめ)에서 “인간은 태어남에 있어 귀천 빈부의 차이는 없다. 단지 학문에 정진하여 사물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귀인이 되고 부자가 되며, 배우지 않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고 하인이 된다”고 했을 때,²⁸ 당시의 일본인들이 근대적 교육으로서 대표되는 학력을 탄생과 동시에 세습되는 불공정한 신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학력 중심의 능력주의의 순기능을 적절하게 제시한 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력 중심의 능력주의의 폐단은 샌델(Michael Sandel)이 지적한 것처럼,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모두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데에 있다.²⁹ 즉, 부모와 교사, 강사들과 같은 주변 환경의 도움으로 인해 명문대 입시에 성공했음에도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거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 — 혹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해 — 대학 진학에 실패했음에도 그 원인을 자신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저학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스스로에 대한 체념을 조장할 뿐, 오늘날 불평등의 심화를 조금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샌델은 주장한다.³⁰ 특히 그는 엘리트들의 저학력자들에 대한 태도를 문제시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에서 ‘별자리 연구회’를 만든 도쿄대 회원들에게 거의 공통되는 것으로, 작자는 이를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보여 준다. 수많은 구절 중 다음 대목 하나만을 보기로 하자.

체포하러 온 공고졸인가 하는 경찰관도 찌꺼기지만, 제일 찌꺼기는 신고한 골통 여대년이야. 그 멍청한 년. 대놓고 말하고 다니진 않았지만, 단세포부터 사람까지 머리 나쁜 놈, 몸이 약한 놈, 몸이 불편한 놈은 싹 다 약자야. 약자는 도태

28 福沢諭吉, 『學問のすゝめ』, 岩波書店, 1942, 12쪽.

29 마이클 샌델,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와이즈베리, 2020, 36쪽.

30 마이클 샌델,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159~161쪽.

되지. 약육강식은 자연계의 원칙이야. 왜 이 진실을 감추려 하지? 이진 진실이야. 자연스러운 거라고. 강자는 여유로 약자를 감싸 쥐. 내려다보는 시선? 뭐가 나쁘지? 봉사활동, 자선, 복지, 전부 내려다보는 시선이 주는 선물인데.³¹

위는 가나자와의 명문 가가미가오카고등학교를 졸업해 도쿄대에 입학, 대학원 재학 중에 가가 국제 교육 교류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MIT 유학이 결정된 와쿠타 사토루가, 외설 사건으로 기소된 후,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된 이후의 심정을 초점화한 대목이다. 약자에 대한 혐오의 근간이 되는 약육강식의 세계관은, 실은 고학력 엘리트가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해서 겨우 깨닫게 되는 비밀스러운 진리라기보다 아이나 저학력자도 알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설득당한다는 점이 바로 위의 대목을 통해 표상되는 오늘날 능력주의의 문제이다. 봉사활동이나 자선 등의 이타적인 행위조차도 강자에 의한 “선물”로 전유하는 인식에서는 오늘날 엘리트주의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물론 엘리트의 윤리적 타락은 비단 신자유주의의 문제만은 아니다. 예컨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블루의 시대』(靑の時代)에서는 전후 혼란기에 사기(詐欺) 사건을 일으킨 도쿄대생³²이 나오고, 일본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천인오쇠』(天人五衰)에서는 도쿄대를 다니는 주인공 야스나가 도루(安永透)가 나르시즘에 빠져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³³ 하지만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속의 도쿄대생이 이렇게까지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데에는, 세계화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불안을 능력주의 세계관으로 감추려고 하는 시대적 흐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즉, 와쿠타의 능력이 가나자와의 문화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역시 무

31 히메노 가오루코,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477쪽.

32 三島由紀夫, 『靑の時代』, 新潮社, 1950.

33 三島由紀夫, 『天人五衰』, 新潮社, 1971.

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불안이 한시라도 우월감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소설 속에서 범죄 행위를 행한 와쿠타를 비롯한 도쿄대생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시종일관 냉정하다. 이는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건 후 이른바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 등으로 나타나는 여론이, 가해자인 도쿄대생을 비난하기보다는, 피해자인 미사키를 이른바 도쿄대생을 상대로 돈이나 뜯어내려 하는 ‘꽃뱀’으로 몰고 신상털이를 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음과 관련될 것이다. 본말이 전도된 반응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작자가 그러한 동정 여론 밑에서 은폐되는 사실로서 가해자의 편협한 세계관과 윤리성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소설을 통해 작자는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일일 수 있다는 가정을 일절 차단하는 데 시종일관한다. 실제로 작자는 미우라 조지가 처음부터 도쿄대와 비도쿄대의 학력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쿄대를 향한 욕망을 돈벌이와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별자리 연구회’를 만들어 오차노미즈대와 미즈타니여대의 학생들을 끌어들었고, 그러한 인식하에서는 미사키가 당한 일은 다른 여성에게 언제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매우 상세하게 그려 내고 있고, 이는 실제 법정에서 입증된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작자는 어디까지나 “도쿄대에 입학한 우수한 ‘능력’을 이런 짓에 사용한” 부분에 분노하고 있을 뿐, 우에노 치즈코처럼 그 ‘능력’의 내실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친다. 이는 일본에서 도쿄대라는 학교명이야말로 쓰바사와 미우라 조지를 비롯한 도쿄대생들의 현재 대학생으로서의 ‘능력’을 다시 정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불문에 부치도록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도록 만든다. 즉, 미우라와 쓰바사, 이시가 도쿄대 자퇴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정 다툼을 계속해서 벌여 나가는 것은, 이제부터 도쿄대라는 방패막이 없이 자기 능력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으로, 가해자인 도쿄대생들 편에 서서 이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 하는 일이다. 도쿄대라는 이름은 시대에 맞는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입증을 새롭게 요청하는, 그야말로 심신이 모두 피로해지는 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하는 면죄부로서, 도쿄대생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두에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와쿠타와 구니에다는 이미 도쿄대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인 만큼, 불기소 조건으로 피해자가 내세운 자퇴라는 조건을 쉽게 수락한다. 대학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치명적인 손해도 없이 계속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는 편차치로 입학하는 대학의 이름이 그 사람 능력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현대 일본 사회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에게 쫓겨난 치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 보인다.

4. 나가며: 학력 편차 밖의 세계

히메노 가오루코의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는 일견 편차치의 꼭짓점에 있는 도쿄대생의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통해 학력 사회 일본의 모습 전체를 표상하는 데 성공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학력 사회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도록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

깃카와 도루는 80년대 이후 일본 학력 사회 문제의 핵심을, 대학 진학자의 수가 늘지 않는 ‘학력 분단’에서 찾는다. 즉, 학력 분단은 90년대 이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 진학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대학 진학희망자 수는 고작 동년 인구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이가 잔뜩 있지만, 가고 싶어도 대학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옛날처럼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대졸 층은 전원 참가 게임의 ‘위너’가 아니라, 바야흐로 학력 게임의 참가

자에 지나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깃카와는 말한다.³⁴ 이에 따르면 『그 여 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속의 편차 중심의 능력주의는 결국 대학 진학자 들만의 세계를 그린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학력 격차의 문제는 계급 격차의 문제를 학력 의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보려는 관점에서 시작되는데, 사회적 임금의 격 차가 대학 졸업자들과 고졸자 간의 차이에 의해 심화한다는 ‘데이터’를 바 탕으로 대학 진학률에 주목하니, 여러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문 제는 단순히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지역 간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이른바 ‘학력 세습’이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 똑같은 대졸자라도 세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대졸자라 하더라도 취업 기간을 놓치거나 출산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면 비정규직으로 돌려진 다는 점 등은 정제된 대학 진학률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실은 이 시기의 일본의 문학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표상하는 작품들 이 연이어 발표되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가장 먼저 2009년 제140회 아 쿠타가와상 수상작인 쓰무라 기쿠코(津村記久子)의 『라임포토스의 배』(ボト スライムの舟)³⁵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대학 졸업 후 들어간 회사에 서 상사에게 심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 퇴사한 이후, 1년 동안 무직 생활 을 하다가 나라(奈良)에 있는 화장품 공장 라인에서 시급 800엔짜리 아르바 이트로 시작해, 세후 월급 13만 8,000엔을 받는 계약직 사원으로 승격되어 4년을 버틴 후, 현재는 연봉 163만 엔을 받는 라인부서 책임자가 된 여성 나가세 유키코(長瀬由紀子)의 이야기가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려지고 있 다.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저임금 노동자로 사는 그녀의 삶에서 고등학교 때 의 편차치와 대학명은 일절 언급되지 않으며, 대학에서 배운 영어나 제2외 국어로 선택한 스페인어는 그녀의 현재 직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녀

34 吉川徹, 『学歴分断社会』, 38쪽.

35 쓰무라 기쿠코, 김선영 옮김, 『라임포토스의 배』, 한겨레출판, 2016. 원작은 津村記久子, 『ボトスライムの舟』, 講談社, 2009.

에게 일은 “어두운 밤에는 전깃불을 밝히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을, 추운 겨울에는 전열기나 석유 스토브를 켤 수 있을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유지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같은 게, 생활을 유지해 봤자”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진다.³⁶ 따라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연봉과 같은 금액을 모아 세계일주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인데, 급여만으로는 부족해서 짬을 내 대학 동창의 카페에서 시급 850엔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 꿈을 실현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 제161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인 이마무라 나쓰코(今村夏子)의 『보라색 치마를 입은 여자』(むらさきのスカートの女)³⁷에서는 학력과는 무관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세계가 그려지고 있다. 이야기는 비정규직 일을 전전하면서 일이 없을 때면 보라색 치마를 입고 상점가를 어슬렁거리는 동네 주민 히노 마유크(日野まゆこ)를 유심히 관찰하던 화자가, 실직 기간이 길어진 그녀를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객실 청소직에 지원하도록 유도해 마침내 성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를 계기로 호텔 객실 청소원들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라임포토스의 배』와 마찬가지로 시급 불과 수십 엔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갖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한 사회 재교육이나 노동쟁의 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샴푸와 수건, 샴페인 등의 호텔 비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으로 불만을 달랠 뿐인데, 화자처럼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야기 속에서 개인적으로 찾아온 경제적 위기는, 회사나 사회의 안전망이 아니라, 대담한 호텔 비품 유출과 이에 대한 혐의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해결되는데, 이러한 결말은 일견 지나치게 읽는 재미만을 강조한 나머지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삶과 윤리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학력과는 무관한 세계에서 벌어지

36 쓰무라 기쿠코, 『라임포토스의 배』, 82~83쪽.

37 이마무라 나쓰코, 홍은주 옮김, 『보라색 치마를 입은 여자』, 문학동네, 2020. 원작은 今村夏子, 『むらさきのスカートの女』, 朝日新聞出版, 2019.

는 삶을 이렇게 블랙 코미디식으로 보여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관심이 라도 가져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위의 두 여성 작가에 의해 그려지는 일본 사회의 모습은, 학력 세습 등에 의해 심화하는 사회적 불평등 재현 이면에 가려진, 더 깊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일본 사회 속의 학력 분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표상에서도 일본 문화계는 분단된 것이다.

학력 표상의 분단은 학력의 의미가 교육과정이 끝난 이후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계급과 젠더의 차이로 인해 달라지기 때문에 비롯된다. 더불어 어떤 문학 및 문화 텍스트도 하나의 작품으로써 동시대 일본 학력 사회 전체를 표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작가의 성향만이 아니라 텍스트가 갖는 형식적, 의미론적 제한으로 인해 학력 문제는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그와는 반대로 주변화되기도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개별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학력 사회의 표상을 일반화하기보다는 그 차이를 통해서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문학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문학상 수상작으로 호평받는 문학작품보다는, 비교적 덜 다루어진 <드래곤사쿠라>와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를 중심으로, 학력보다는 편차가 중시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문제를 추적했다. 하지만 이 두 작품 속의 학력 표상을 앞서 살펴본 그것과는 일견 무관해 보이는 다른 계열의 작품과 비교한다면, 일본에서 학력이 사회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시대는 끝났지만 바로 그 때문에 편차를 중시하는 경향은 점점 가속화되는 한편, 편차와 학력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이른바 ‘대중교육 사회’의 종언 후 일본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현대 일본 사회의 모습이 일본보다 더욱 현저한 학력 사회 속에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한국 사회에 크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학력 사회의 최정점에 있는 명문대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타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윤리 의식도 하나의 능

력으로 간주해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학력이나 편차만으로 본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바깥에서 살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취약성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즉,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에 굳이 특정 대학을 가도록 독려할 이유를 만드는 것보다, 대학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불과 시급 수십 엔의 인상 이외에는 다른 비전을 찾을 수 없는 일본의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표상을 통해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자: 2021. 12. 20. | 심사완료일자: 2021. 12. 30. | 게재확정일자: 2022. 1. 16.

www.mext.go.jp/b_menu/shingi/chuuou/toushin/960701.htm(최종검색일: 2021. 10. 21.).

中央教育審議会, 「初等中等教育における当面の教育課程及び指導の充実・改善方策について(答申)」, 2003,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03100701.htm(최종검색일: 2021. 10. 21.).

中央教育審議会, 「小学校, 中学校, 高等学校及び特別支援学校の学習指導要領等の改善について(答申)」, 2008,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toushin/1216828.htm(최종검색일: 2021. 10. 21.).

Benesse교육종합연구소, 「학교 외 교육활동에 관한 조사」, 2017.

Gaomoran, A., "Tracking and Inequality," in M. Apple, S. Ball, & A. Gandin, eds.,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ology of Education*, Routledge, 2010.

OECD, *PISA 2003 Results: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OECD Publishing, 2004.

OECD, *PISA 2006 Results: Science Competencies for Tomorrow's World: Volume 1: Analysis*, OECD Publishing, 2007.

OECD, *PISA 2009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Vol. I)*, OECD Publishing, 2010.

OECD,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ity (Vol. II)*, OECD Publishing, 2013.

OECD, *PISA 2015 Results: Excellence and Equity in Education (Vol. I)*, OECD Publishing, 2016.

OECD, *PISA 2018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Vol. I)*, OECD Publishing, 2019.

OECD PISA 데이터베이스, <https://www.oecd.org/pisa/data/>(최종검색일: 2021. 10. 13.).

현대일본 문화 속의 '학력 사회' 표상과 분단 | 남상욱

무라타 사야카, 김석희 옮김, 『편의점 인간』, 살림, 2016.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못 참는 것에 대하여』, 이데아, 2021.

셸, 마이클, 함규진 옮김,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와이즈메리, 2020.

쓰무라 기쿠코, 김선영 옮김, 『라임포토스의 배』, 한겨레출판, 2016.

이마무라 나쓰코, 홍은주 옮김, 『보라색 치마를 입은 여자』, 문학동네, 2020.

히메노 가오루코, 정수란 옮김, 『그 여자에는 머리가 나쁘니까』, 연우출판, 2021.

『『彼女は頭が悪いから』作者・姫野カオルコさんインタビュー: 小説に込めた思いとは』, 『東大新聞オンライン』 2019. 2. 7. <https://www.todaishimbun.org/himeno20190207/>(최종검색일: 2021. 10. 20.).

赤木智弘, 『若者を見殺しにする国: 私を戦争に向かわせるものは何か』, 双風舎, 2007.

今村夏子, 『むらさきのスカートの女』, 朝日新聞出版, 2019.

内田樹, 『下流志向』, 講談社, 2013.

荻谷剛彦, 『大衆教育社会のゆくえ』, 中央公論新社, 1995.

吉川徹, 『学歴分断社会』, ちくま新書, 2009.

庄司薫, 『赤頭巾ちゃん気をつけて』, 中公文庫, 1973.

竹内洋, 『学歴貴族の栄光と挫折』, 講談社学術文庫, 2011.

橘木俊詔, 『日本の教育格差』, 岩波書店, 2010.

津村記久子, 『ボトスライムの舟』, 講談社, 2009.

姫野カオルコ, 『彼女は頭が悪いから』, 文藝春秋, 2018.

福沢諭吉, 『学問のすずめ』, 岩波書店, 1942.

二葉亭四迷, 『浮雲』, 岩波文庫, 1941.

三島由紀夫, 『青の時代』, 新潮社, 1950.

三島由紀夫, 『天人五衰』, 新潮社, 1971.

三田紀房, 『ドラゴン桜 フルカラー 版』 1巻, kindle版, コルク, 전자책, 2021.

村田さやか, 『コンビニ人間』, 文藝春秋, 2016.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 ちくま文庫, 2007.

上野千鶴子, 「平成31年度東京大学学部入学式 祝辞」, 2019. 4. 16. 도쿄대학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21. 10. 25.)

https://www.u-tokyo.ac.jp/ja/about/president/b_message31_03.html(최종검색일: 2021. 10. 25.).

Utaisaku-web, 「東大入試足切り点・合格最低点推移」, <https://todai.info/juken/data/>(최종검색일: 2021. 11. 30.).

언더클래스의 출현과 새로운 계급사회 | 하시모토 겐지

加藤圭木, 「朝鮮植民地支配と公害: 戦時期の黄海道鳳山郡を中心に」, 『史海』 61巻, 2014.

橋本健二, 『〈格差〉と〈階級〉の戦後史』, 河出書房新社, 2020.

厚生労働省, 『職業安定業務統計』.

厚生労働省, 『労働力調査』.

内閣府, 『経済財政白書』, 2000.

Cingano, Federico,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2014.

Hashimoto, K., "Transformation of the class structure in contemporary Japan,"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20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Poulantzas, N., *Les Classes Sociales dans le Capitalisme Aujourd'hui*, Seuil, Fernbach, D.(tr.), 1978,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Verso, 1974.

Roemer, John E.,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Wright, E. O., *Class, Crisis and the State*, New Left Books, 1978.

Wright, E. O.,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Academic Press, 1979.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 한일비교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사 리뷰 | 정인관

김미란, 「일본의 사회변동과 교육격차: 격차 사회론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권 2호, 2010.

다치바나키 도시야키, 『일본의 경제 격차』, 소화, 2001.

박현준·정인관, 「20년 간의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 30~49세 두 남성 코호트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 55권 3호.

사토 도시키, 『불평등 사회, 일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4.

양준호, 「'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 『일본비평』 4호, 2011.

정인관·최성수·황선재·최윤.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

히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간의 차이(학교 간 분산)가 크다는 점은 학교의 서열화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주제어: 교육격차, 교육개혁, 중등교육제도, 중고일관교육,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

현대일본 문화 속의 ‘학력 사회’ 표상과 분단 | 남상욱

이 글은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일본에서 ‘학력 사회’는 문학 및 만화 등의 미디어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그 표상의 배후에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글은 만화 <드래곤 사쿠라>(2003~7) 속의 외부자에 의한 학교 개혁과 그 방법으로서 도쿄대 진학 특별반이라는 허구적 설정이 2000년대 일본을 몰아닥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의 재정적 위기감, 학력 저하,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을 컨텍스트로 활용함으로써 리얼리티를 확보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제재로 한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2018)를 통해서 고교 편차치가 대학 진학 이후의 대학생의 삶을 여전히 구속하고, 능력주의를 정당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도쿄대라는 시니피앙이, 무한 경쟁을 통해 능력을 증명하길 원하는 사회의 피로감을 완화하는 완충제적 역할로서 대중들에게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학력 편차가 쓸모없어진 세계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그려진 문학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들 작품은 학력 사회 표상에서도 분단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학력 세습을 비판하며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 불균형의 해소 노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깊은 불평등이 존재함을 드러낸다. 이는 교육 기회 확대만으로서 해소될 수 없는 인간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학력 불평등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학력 사회, 능력주의, 드래곤사쿠라, 그 여자애는 머리가 나쁘니까, 편차, 도쿄대, 표상, 분단

언더클래스의 출현과 새로운 계급사회 | 하시모토 겐지

일본의 경제 격차는 1980년대 이후 확대되는데, 21세기에 들어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격차사회’는 유행어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격차 확대의 원인과 사회적 귀결을 계급론적 접근에 의해 밝히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구조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위치하는 자본가 계급, 신 중간계급, 노동자 계급과 단순 상품 생산에 위치하는 구 중간계급, 이 4계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근래 들어 노동자 계급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그 최하층에 빈곤한 비정규 고용 노동자가 대량으로 집적되었다. 이들을 정규 고용 노동자 계급과 구별해 ‘언더클래스’라 부를 수 있다. 언더클래스는 일이나 생활에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건강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고, 미혼이거나 이혼·사별을 경험한 이들이 대다수다.

격차 확대는 사람들의 사회의식에도 변화를 초래하며 정치의식의 양극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사회 조사 데이터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현대 일본에는 3가지 정치의식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첫째가 격차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군비 증강에 부정적인 리버럴파, 둘째가 격차 확대를 용인하고 소득 재분배를 부정하며 일본군 헌법 개정에 따른 일본군의 부활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우익, 마지막인 셋째가 중간적인 온건 보수파. 경제 격차를 확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군비 증강, 중국과 한국을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을 시행해 온 자민당 정권은 신자유주의 우익의 지지 위에 존립해 왔다. 경제 격차의 확대는 일본 경제의

The result shows that the high school reform policy, which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late 1980s for the sake of alleviating competition and encouraging diversity among students, eventually brought new classification of schools. Initially, educational reform has aimed to increase students' options to mitigate hierarchical rank structure among highschool. Nonetheless, the reform failed to narrow the variance of educational performance among schools which indicates that the gaps among students' educational performance caused by socio-economic backgrounds remain in remarkably large figures in school level. In addition, analyzing the PISA results in the period from 2006 to 2015, during which Japan's PISA score increased steadily, it was ver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academic achievement became more significant.

Since these results are drawn from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1st semester), it can be interpreted as a characteristic of the selection system rather than as a high schools' effect. That is, high school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caused by socio-economic backgrounds indicate that socio-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of students in their middle school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ir rank of entering high school. Furthermore, the large figures of performance variation among high schools show that the hierarchical phenomena among schools still remains.

• **Keywords:** Educational Gap, Educational Reform, Secondary Education System, seamless school system, Diversification of High School Policy

Representations and Division of “*Gakureki Shakai*” in Contemporary Japanese Culture | NAM Sang-woo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how the ‘*gakureki shakai*’ is represented in media such as literature and manga and what is the problem behind the representation in Japan where neoliberalism has been fully expanded.

First, this article tracks the process of securing reality by the fictional setting of the education reform by outsiders and as a method, making a special class for entering University of Tokyo in *Dragon Sakura*(2003-7), by using the financial crisis of private schools due to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at hit Japan the decline in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due to neoliberalism in the 2000s as context. And then it reveals that the deviation in high school academic background still binds the life of college students after entering college and justifies meritocracy, through ‘*Kanozoha-atamaga-waruikara*’ that the sanctions on actual events (2018).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how that the signature of the University of Tokyo is being consumed by the public as a buffer to alleviate the fatigue of society that wants to prove its ability through infinite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during this period, novels depicting the lives of women living in a world where educational background deviations have become useless were highly praised. These works not only reveal the existence of division in the representation of ‘*gakureki shakai*’,

but also represent of deep inequality that cannot be resolved only by efforts to resolve social imbalances through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s suggests the need to approach the problem of educational inequality while looking at human vulnerabilitie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 **Keywords:** *gakureki shakai*, meritocracy, dragon Sakura, *Kanozoha-atamaga-waruikara*, Deviation in academic background, representation of University of Tokyo, division

Emerging Underclass and the New Class Society in Contemporary Japan

| HASHIMOTO Kenji

In Japan, economic disparity has rapidly expanded since the 1980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fact of expanding disparity had become widely recognized, and “disparity society” became a buzzword. This article clarifies the causes and social consequences of this expanding disparity by means of the class theory approach. Generally, the class structure of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y is considered to consist of four classes: the capitalist class, the new middle class and the working class, which are located in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the old middle class, which is located in the simple commodity production. However, recently the disparity within the working class has expanded, and at the bottom of the class there has been a massive accumulation of poor non-regular workers. We can distinguish these people from the regular working class and call them the underclass. Most of the underclass are dissatisfied with their jobs and lives, and often have health problems, many of whom are unmarried, divorced or widowed.

Expanding disparities are also changing people’s social consciousness, and their political attitudes are becoming more polarized. A cluster analysis of social survey data shows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political attitudes among contemporary Japanese people. Firstly, liberals, who believe that expanding disparity is a serious problem and that income redistribution is necessary, and who are negative towards Japan’s military expansion; secondly, the neo-liberal rightists, who accept expanding disparity, reject income redistribution, and call for the revival of the Japanese military through modification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thirdly, moderate conservatives, who are between the two. The LDP government, with its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that have expanded economic disparity, its military expansion and hostile foreign policy toward China and South Korea, has been supported by the neo-liberal rightists. And the expanding economic disparity caused by neo-liberalism has prevented the growth of the Japanese economy and create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growing underclass.

• **Keywords:** disparity society, expansion of disparity, class structure, underclass, political consciousness, neo-liberalism